세월호 참사뒤에 감춰진 신자유주의 실체

신자유주의와 세월호 이후 가야 할 나라

민교협 엮음

세월호는 몇몇 개개인들이 부도덕과 이기심이 가져온 우연한 '교통사고'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듯, 비고의적인 우연한 요소들이 겹쳐서 발생한 해양사고로 축소하기엔 이 사건을 둘러싼 거시적 맥락과 그 결과가 너무도 위중하다.

세월호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 특히 최근 20년간 우리 사회가 걸어온 신자유주의의 모순들이 집약된 구조적 사건이다. 시민 생명과 생활의 위기를 담보로 독점자본과 가진 자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한 신자유주의로 황폐화된 대한민국의 사회 시스템이 낳은 대참사가 세월호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사건 자체의 직접적인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대참사를 발생케 한 역사적 체계와 사회구조적 모순까지 파고들어야만 이후를 논할 수 있다.

세월호 이후 참사 뒤에 감춰진 신자유주의 실체를 고발하고 사람이 귀하게 대접받는 사회를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이 나왔다.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이 엮은 '신자유주의와 세월호 이후 가야 할 나라'는 세월호 참사를 엄격하게 성찰하고 그 의미를 분명히 각인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고희선·김서중·노진철·박상환·박주민·배병인·서영표 교수는 비극의 본질, 비극을 낳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꿰뚫어보고 대안을 제시한다.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1부는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측면과 연관해 국가가 보인 무능력과 무책임성을 분명히 짚고 넘어간다. 2부는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신자유주의 구조와 연관해 핵심적 영역 전반에 걸쳐 전개된 위험사회의 면모를 분석한다.

3부와 4부는 신자유주의로 필연화된 한국판 위험사회에 대한 공공적 경제 장치의 부재를 분석하고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성찰적 대안을 고민해본다.

"시민들의 인내심은 임계점에 도달했다. 초착취적 신자유주의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 "같이 좀 살자"는 시민들의 소박한 요구가 실현되는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할 때이다."

〈앨피·1만6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인간은 왜 동물과 달리 자존감에 목숨 걸까

슬픈 불멸주의자

셸던 솔로몬 외 지음

인간은 왜 동물과 달리 생존을 추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존감에 목숨을 걸까? 왜 여러 집단에 소속되고 문화 활동을 할까? 과연 인간의 근본적인 동기는 무엇인가?

스키드모어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셸던 솔로몬과 동교 교수들이 인간은 죽음의 공포에 대처하기 위해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한다는 주장을 담은 '슬픈 불멸주의자'를 펴냈다.

책은 지난 30여 년간 500건이 넘는 연구 관찰, 실험을 통해 세계 심리학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킨 '공포 관리 이론'을 토대로 쓰여졌다. 사실 역사상 수많은 철학자, 문학가들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인간의 핵심적인 고뇌임을 이해했다. 그러나 정작 인간의 정신을 탐구하는 심리학의 영역에서 '죽음'의 문제는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없는 주제로 여겨졌다.

저자들은 실험집단에게 언젠가 죽을 운명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통제집단에게는 별다른 언질을 주지 않았다.

실험 결과 '죽음의 공포'는 소비, 투표, 재판, 자선활동, 애국심 등 인간의 판단과 활동을 좌우하는 근본 동기임이 밝혀졌다.

책은 인간과 다른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도의 자기인식과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며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역설적으로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신이 더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도 안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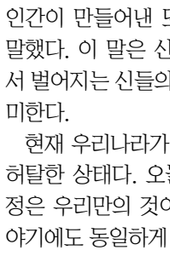
〈흐름출판·1만6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신들의 이야기에서 내 안의 '나'를 발견하다

신화로 읽는 심리학

리스 그린 외 지음



신화학자 마이클 그랜트는 "신화는 인간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역사"라고 말했다. 이 말은 신화는 인간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신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은 너무나 허탈한 상태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감정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다. 신들의 이야기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신화는 사람과 동떨어진 옛날의 전설이나 민담으로 치부할 수 없다.

인류는 역사 이래로 신화나 설화 등을 매개로 불가사의한 세계를 이해해왔다. 신화란 인간이 존재하면서 겪게 되는 감정과 지혜, 아이디어를 신의 이야기를 빌어 풀어낸 서사다. 일종의 간접체험의 한 방편으로 사람이 어떻게 시련을 극복하고 앞날을 대비해야 할지 알려주는 도우미이다.

세계 곳곳의 신화를 수록한 책이 출간됐다. 저명한 분석심리학자인 리스 그린과 정신분석 심리치료사 줄리엣 샤만버크가 펴낸 '신화로 읽는 심리학'은 신들의 이야기에서 발견해 낸 '나'를 분석한다.

책에는 그리스 로마신화부터 히브리, 이집트, 켈트족 나아가 북유럽 신화에 이르기까지 모두 51개 신화를 소개한다. 저자들은 단순히 신화를 소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사와 맞춰 신화를 구성해낸다.

즉 한 사람이 태어나 여러 시련을 통해 성장해가는 과정,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독립을 하고, 결국엔 생의 종착지인 '죽음'으로 향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는 형제간 경쟁, 물질에 대한 집착, 죽음에 대한 공포 등 인간이면 누구나 겪는 문제들이 담겨 있다. 책에 수록된 몇 개의 신화를 들여다보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테티스와 아킬레우스는 모자지간이다. 테티스는 아들 아킬레우스가 자신보다 뛰어난 신이 되길 원했지만 허망한 결론에 이르고 만다. 테티스가 아킬레우스에게 자신의 소망을 강요하게 된 것은 불행한 결혼 생활 때문이었다. 어른이 된 아킬레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참전했다 결국 발꿈치에 화살을 맞은 후 죽고 만다.

위 신화처럼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특별했으면 하는 소망을 갖는다. 그러나 부모의 기대만큼 자녀들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 역시 자신도 모르게 자녀에게 과도한 소망을 투영해 강요하고 있지나 않은지 모른다.

그리스 신화 가운데 비극의 이야기는 적지 않다. 그 가운데 에코와 나르키소스의 실패한 사랑도 비극에 다름아니다.

아름다운 청년 나르키소스는 숲속의 요정 에코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에코는 거만한 나르키소스가 아픔을 느끼게 해달라고 신들에게 빈다. 나르키소스는 연못가에서 물을 마시다가 물에 비친 절세의 미인을 발견하고 사랑에 빠진다. 그가 물 위에 입술을 대고 입을 맞추려고 하면 미인은 이내 사라져버린다. 나크키소스에게 형벌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던 에코 또한 눈먼 분노로 자신을 그르친다. 그녀의 몸은 스러져갔고 목소리만 남아 마지막 단어를 되풀이하는 형벌에 처해진다.

이 신화는 무엇을 말하는가. 자기를 알지 못하면 영영 자기중심적에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또한 실패한 사랑이 복수라는 질투로 연계될 때는 또다른 고통을 낳게 된다. 이처럼 신화는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마음을 비춘다. 비슷한 심리를 진닌 인물의 행적을 간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깨닫도록 견인한다.

인간이 살면서 겪게되는 다양한 경험과 감정 그리고 지혜를 신의 이야기를 빌려 풀어낸 것이 신화다. 〈유아이북스제공〉

〈유아이북스·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더 나은 삶을 위해 국제결혼한 베트남 여인

쓰엉

서성란 지음

흑갈색 눈동자와 검은 피부의 베트남 여인 쓰엉, 젊고 건강한 그녀는 국제 결혼중개업소에서 만난 김종태와 결혼해 한국의 작은 시골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상상했던 결혼생활과 달리 시어머니와 갈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남편은 시어머니와 자신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화를 모른 척 한다.

제3회 실천문학상 신인상을 받고 문단에 등단한 서상란 소설가의 다섯 번째 장편 '쓰엉'이 나왔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립된 사람들을 소설의 주인공으로 내세웠던 서성란 소설가가 이번에는 베트남 여인을 서사의 한가운데로 불렀다.

작가가 형상화한 쓰엉은 순응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꾸려나가는 젊고 건강한 여인이다. 단지 결혼을 위해 이주해 온 이방인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꿈꾸는 평범한 여인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산지니·1만3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주식시장 나도는 '소음'과 '알짜 정보' 구분 방법

소음과 투자

리처드 번스타인 지음

"'정보'라 불리는 거의 모든 것은 소음이다."

투자 거장 리처드 번스타인이 펴낸 '소음과 투자'는 주식시장에 나도는 과대 선전과 루머 등의 '소음'과 '알짜 정보'를 구분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과잉 정보의 시대, 차고 넘치는 이 정보들이 과연 주식 투자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을까. 저자는 'No'라고 단언한다. 정보가 많아지면서 알짜 정보보다 소음이 훨씬 많아졌기 때문이다.

저자는 투자 정보의 원천이 소음인지 알짜 정보인지 구분할 수 있는 두 가지 큰 기준을 제시한다. 첫째는 정보의 질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둘째는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다. 누구의 말도 신뢰하기 어려운 투자 환경에서 소음 필터링 기법을 터득하는 것은 투자의 필수요건이 되었다. 〈북돋움·1만6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